

국경의 섬

규슈 서해안에 떠 있는 이키, 쓰시마, 고토 열도는 역사적으로 줄곧 일본과 아시아 대륙의 만남과 교류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고분과 사찰, 고대 마을과 성터,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풍습 및 의식 등, 이 섬들은 2300년 간에 걸친 교역, 문화 교류, 그리고 분쟁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키와 쓰시마가 위치한 쓰시마 해협(대한 해협 동수로)을 사이에 둔 일본 열도 사람들과 아시아 대륙 사람들 사이의 정기적인 교류는 기원전에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3세기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의 일부인 「위지왜인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지왜인전」에는 한반도를 경유해 야마타이국으로 향하는 위나라의 사신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쓰시마와 이키국의 왕도 하루노쓰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키 사람들이 한반도, 중국, 일본 본토에서 온 상인 및 여행자와 물건·정보를 교환한 교류의 중심지였던 역사는 **하루노쓰지 특별 사적**과 인접한 **이키코쿠 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쓰시마의 초기 역사는 상세한 전시를 자랑하는 **쓰시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키 왕국은 일본 본토 세력에 흡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6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중계지로 이 섬을 이용했습니다. 이때 유력한 무장의 무덤으로 수백 기의 **고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고분은 지금도 남아 있으며, 일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600년대 중반에 일본과 동맹국이 반도에 품었던 야심이 당나라와 신라에 의해 무너진 후, 쓰시마와 이키는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성과 봉화대 연결망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쓰시마의 **가네다 성**은 이 연결망의 최초 방어선이며, 이키의 **다케노쓰지**는 외세의 위협을 규슈에 전하기 위해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7세기는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630년 이후 일본은 당나라에 **외교 및 통상 사절**을 파견하여 중국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키와 쓰시마를 경유했으나 702년부터는 고토에서 직접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짧지만 위험한 경로가 채택되었습니다. 고토 열도에는 경치가 빼어난 **미이라쿠 반도**를 비롯해 **견당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 다수 산재해 있으며, 견당사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세부터 전국 시대(1467~1568)에 걸쳐 쓰시마 해협(대한 해협 동수로)을 사이에 둔 교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의 섬들에 있던 상인들과 해적들은

한반도와 중국 연안에서 교역과 해적 행위를 했으며, 그중에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어느 정도 정치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키의 **나마이케 성**은 이들 중 한 사람이 쌓았으며, 고토 열도의 **히노시마 섬 석탑군**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뱃사람들의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1590 년대에 무장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는 이키, 쓰시마, 한반도를 거쳐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 두 번 시도했습니다. 이키의 **가쓰모토 성**과 쓰시마의 **시미즈 산성**은 그 거점으로 지어졌으나 결국 원정은 실패로 끝났고 한반도와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1600 년대 초 쓰시마의 영주인 소 가문의 노력으로 다시 관계가 복원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소 가문은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 관계를 관리하는 대가로 유리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조선통신사**는 모두 쓰시마를 거쳐 갔으며, **반쇼인 절의 소 가문 묘소**와 **오후나에** 선거 등 쓰시마에는 조선과의 무역이 가져다준 번영을 상징하는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이키, 쓰시마, 고토는 아시아 대륙과 교류한 역사를 말해 주는 많은 유적과 풍습, 유물들이 있으며 ‘국경의 섬 이키·쓰시마·고토~고대부터의 가교~’라는 이름으로 일본 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